

별별신문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찾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하여 붙여 부르는 말이다.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의미 있고 좋은 뜻을 품고 아이가 삶에서 중요한 가치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정성 들여 시간을 갖고 짓기도 한다.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 특별히 좋은 의미를 담아 짓는 정성을 보이기도 한다. 한 평생 남이 불러주면서 관계를 맺게 되는 이름들은 사람들 개인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은행, 동사무소, 각종 계약, 교육 등에서, 사회와 사람들과 만나면서, 계속 이름으로 나를 확인 받고 증명하면서, 좋은 삶은 이름은 전면에 나서게 된다.

나의 의지로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서, 괴상한 뜻이나 발음이라서 개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별칭을 지어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는 등 이름을 둘러싼 개인의 자기증명은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번 별별신문에서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이름은 어떤 의미이고, 이 이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용되다가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나를 설명해주는 이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다양한 이름과의 관계 맺기와 끊기, 다시 기억하기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업소이름과 어떤 의미와 관계가 있을까

이름	나이	업소형태	일한기간
경○, 경○	50대	집결지	30년 이상
혜○	30대	룸(텐프로)	10년 미만
엄○, 예○	30대	룸	15년 미만
체○, 은○	30대	안마	15년 미만
태○, 수○, 진○	30대	집결지, 룸	10년 미만
영○	30대	집결지	5년 미만
선○, 태○	20대	룸	1년 미만
지○	30대	집결지, 룸, 다방	20년 이상
빛○	20대	룸	5년 미만

<9명의 인터뷰 대상자>

<공통 질문 내용>

- ①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특별히 그 이름으로 지은 이유가 있나요?
- ②혹시 같은 가계에 같은 이름을 썼던 아가씨가 있었을 땐 어떻게 했어요?
- ③이 이름은 얼마 정도(기간) 쓰셨나요?
- ④가계를 옮길 때는 다른 이름을 썼어요? 아니면 한번 지은 이름을 업소 생활하면서 계속 썼나요?
- ⑤새로운 이름을 쓰게 되었을 때 전에 쓰던 이름과 헷갈려서 생긴 에피소드 있나요?
- ⑥이름 지을 때 후보로 생각했던 이름 몇 가지 알려주세요. 어떤 이유였나요?
- ⑦이 이름으로 만났던 친구나 업소 아가씨, 주변인과 연락을 하고 있나요?
- ⑧업소 외의 공간에서 업소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을 만나거나 이름을 아는 사람을 봤

을 때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 ⑨이름을 쓰면서 행복했던 순간, 공포스러웠던 순간이 있었나요? 어땠나요?
- ⑩업소에서 쓰던 이름 외에 실생활에서 썼던 가명(예명)이나 다른 이름이 있나요? 어떤 이유인가요?
- ⑪여러 가지 이름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내 이름은 왜?

업소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화류계에서 실명을 걸고 일하는 여성들은 지극히 드문 경우이고, 손님이 부르기에 어렵지 않으면서도 너무 특이하거나 남성/중성적인 이름보다는 여성적인 이름을 선호하는 편이다. 룸/텐프로아가씨 커뮤니티에서는 '언니들은 가명 뭘로 했어요?'라는 질문글에 '모음으로 된 거 중 종성(받침)없는 것으로 만들라'라는 조언이 불기도 한다. 굳이 이름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소개가 필요 없는 업장을 제외하면, 술을 마시거나 여흥을 돋우는 업장에서는 초이스를 위해 소개를 할 때에 이름을 말하기 때문에 잘 팔리고 기억에 남을만한 이름을 하나 꼽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업소 형태만큼이나 일하는 여성들의 '아가씨이름'이 만들어지는 경로도 다양하다. 집결지나 전화발이/여관발이 같은 경우는 업주가 본명을 듣고 업소에서 쓸 이름을 주욱 작명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마에서 일 가르쳐준 언니나 삼촌이 쓰라는 이름을 쓰기도 한다. 다방은 이름이 아닌 성에 '양'을 붙여 김양, 정양, 박양 등으로 불리기에 가명을 지을 필요가 없어 독특한 성씨를 택해 쓰는 경우도 있다.

화류계에서 '본명 쓰면 돈도 못 벌고 잘 안 풀린다'는 미신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실명 자체가 부르기 쉽거나 꼭 가명인것 같아 굳이 따로 가명을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같은 업소 아가씨들과 중복이 안 되면서 잘되는 이름을 짓기 위해 무난한 이름과 특이한 이름, 연예인 이름, 특별히 작명한 이름 등 온갖 작명의 수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이름들은 일할 때만 쓰는 것으로 별다른 감흥도 애정도 없이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게임아이디 같은 스쳐 지나가는 이름 중의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HI!
MY NAME IS

이름 VS 이름

어쩌다 짓게 된 이름이라도 성매매 현장이라는 시공간에서 이름은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 손님이란 얹히면서 아가씨와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망상을 가진 손님은 계속 실명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그때마다 여성은 다른 가명을 알려준다. 때로는 가게에서 잘나가는 브랜드가 된 이름 때문에 가게를 옮겨도 그 이름을 쓸 것을 요구 받기도 한다. 잘 나가던 아가씨의 이름을 같은 업소 아가씨가 단골까지 이어받는 경우도 많다. 여성의 업소이름은 게임아이디 같다고 하지만 어떤 여성에게는 생애에서 특별한 의미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화류계 사람을 그 이름으로 만나고, 성형외과처럼 보험 처리를 할 필요 없는 병원에서는 실명이 아닌 업소이름으로 이용하면서 업소이름은 관계된 모든 이가 알고 사용하는, 내 자신이 되는 것이다.

"가게 바꿀 때마다 이름 바꾸는 애들도 있는데 나는 그러면 내 이름 같지도 않아서 이상해"

남자친구가 본명을 물어봐도 알려는 주지만 절대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이름, 이미 화류계에 들어온 사람이고 이쪽 일을 하고 있는데 괜히 옛날 기억 떠오르게 하는 이름(본명)으로 불리는 게 웬지 싫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일을 하면서 친하게 된 업소 여성을 남자친구에게 소개시키면서 본인을 본명으로만 부르게 하고 만나게 된 과정도 말을 맞춰놓기도 한다. 절대 업소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름은 여성이 경험하는 두 세계를 가르거나 만나게 하고 전혀 다른 세계로 존재하게 하는 마법의 주문과 같다.

이 바닥에서는 새로 부여된 이름으로 불리면서 다른 세계의 본명을 지우고, 일을 그만 두게 되면 화류계이름으로 살았던 세월은 잊어야 할 시간과 기억으로 취급된다. 성매매 경험 여성은 그 이름으로 맺었던 관계도 부정해야 하고, 실명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안전하게 사회에 안착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없었던 일, 없었던 관계, 없었던 사람으로 취급하기에는 업소 이름으로 살면서 일어났던 사건들과 생활했던 시공간이 명백하게 존재한다. 업소이름과 실명의 간극은 끊임없이 대결을 하며 여성의 삶의 경험을 분리시키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가까워서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있기도 하다.

과거를 호명하는 이름과 마주하기

"○○야!"

애인이랑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같은 업소에서 일했던 동료의 이름이 지금 애인은 모르는 업소이름으로 나에게 아는 척을 할 때.

인터뷰했던 여성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했다. 또한 인터뷰를 했던 아홉 명의 여성은 모두 일을 그만둔 상태에서 길을 걸을 때 가게에서 쓰던 업소이름을 듣는 순간 대답을 하거나 화들짝 놀란 경험을 이야기했다.

과거의 업소이름으로 살았던 경험은 부지불식간에 현재의 생활을 침범하기도 한다. 업소를 나와서 평범하게 산다고 생각했던 순간 여성에게 날아드는 업소의 민형사소송 소장에 박혀있는 실명은 오히려 업소이름으로 살았던 순간들을 상세히 떠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게에서 어떤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며 무슨 일을 했는지를 진술서에, 법정에서 설명해야 하는 압박감을 가지고 말이다.

"업소에서 가명 쓰던 언니들은요, 낯선 사람이 이름을 물어보면 습관

적인 거짓말쟁이가 돼요. 본명이 아니라 가명을 써요. 손님이 가명 말고 본명을 가르쳐 달라고 해도 80%는 또 다른 가명을 가르쳐줘요."

한 50대 여성은 일했던 집결지에 거주지가 있어서 일을 그만둔 지금도 과거 동료와 관계했던 사람들과 마주치곤 한다. 집결지 일을 그만두고 식당을 다닐 거라고 하자 주변의 '너는 경○(업소이름)로 살 사람이니 무슨 다른 일이야'하는 비아냥과 마주하면서 힘들었던 시간을 이야기했다. 이 경우는 30여 년 동안 호명되던 이름이 담고 있는 삶과 방식은 다른 삶을 시도 때도 없이 침범하면서 본인이 계획한 미래계획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 여성은 끊임없이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은 좋은 삶든 싫든 필요했고 4년여를 자신이 달라질 수 있는 다른 이름의 사람임을 노력했다고 한다. 여성에게 이 노력의 과정은 뒤돌아보기도 싫은 시간으로 기억된다.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오롯이 담고 있는 이름은 처음에 의미 없이 만들어졌지만, 현재의 삶을 좌지우지하면서 괴롭히기도 하는 것이다.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닌, 지독한 낙인을 다시 만나는 것

결혼여부, 성경험과 상관없이 여자가 업소일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지독한 혐오와 낙인을 불러일으킨다. '쉽게 돈 벌려고 하는 몸 함부로 굴리는 여자'라는 남성의 시각은 사회에 그대로 투영되어 순결한 여성에 대한 칭송과 타락한 여성에 대한 낙인을 공고히 한다. 성매매 경험 여성은 일을 하면서도, 일을 그만두고도, 이러한 사회적 차별을 너무 잘 알기에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의 50대 여성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식당 서빙일을 하는데 집결지를 이용하던 단골이 아가씨이름을 부르고 아는 척을 해서 식당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다. 손끝이 아물고 성실해서 어떤 식당을 가도 칭찬을 받는데 여성은 한 가게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한다. 지역을 불문하고 어디에서 불쭙 여성의 업소이름과 생활을 아는 누군가가 아는 체를 하거나 식당주인에게 사실을 알린다면 '아,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야겠구나'하는 생각만 든다. 식당주인은 식당에 찾아서 쟁판을 쳐대는 집결지 단골보다는 그 단골 때문에 식당을 그만둔 여성에게 '언니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네. 내가 사람 볼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망이네.'같은 말을 하기 일쑤다.

또한, 화류계이름은 자신의 지위야만 하는 과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좋았던 순간, 답답함을 나눌 수 있는 숨통이 될 때도 있어서 업소이름으로 소통하는 관계들을 끊지 않고 지속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들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과 공간이고, 기억하기 싫은 이름이라 하더라도 즐거운 추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스쳐 지나가는 손님이지만 예쁘다고 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면서 많은 돈도 벌게 해줬던 인생의 쟁했던 순간도 함께 있는 이 복잡한 이름의 호명이 가진 힘을 자신들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삶을 택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전망을 발목 잡는 과거를 직면하는 것은 단순히 좋았던 것 나빴던 것을 곱씹으며 추억하는 것만이 아니다.누군가는 숨도록, 누군가는 계속 떠돌도록 하는 이 지독한 낙인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

인터뷰한 여성들 중에는 유독 본명을 개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들 이름 때문에 삶의 굴곡이 심했다고 느끼면서 굴곡 없는 삶을 염원하는 마음이다. 다른 삶을 기획하며 나이 들어서도 불릴만한 좋은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이 성매매 경험여성에게 가해지는 지독한 낙인까지 사라지게 하고 갈아엎는 계기가 된다면 좋을텐데말이다. 부디.

요망한 망상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어떻게 돌아가는 판국인지?
이것저것 건드려보는
거침없는 망상과 탄죽 걸기!



이름이 뭐예요 ♪, 4대악이 뭐예요 ~ ♪

다시 찾아왔다. 4대악이 처음 등장한 건 2012년 12월 16일 TV토론에서였다.

“성폭력이라든가 또 학교폭력, 그, 저기... 음... 불량식품이라든가, 또 가정파괴범 이런 국민들을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4대악에 대해서는...”

나만 웃긴 건가? 나만 웃긴 건가?? 뭔가 이런 느낌이랄까.

성폭력! (파!) 가정폭력! (파악!) 학교폭력! (파딱!) 불량식품!! (웅?...)

웬지 그날 좀 헛갈리셔서, 순간 기억이 안 나서서 대충 생각나는 대로 읊은 게 이 지경까지 왔다는 느낌은 나만 드는 건가?

첫 발언하신 이후에는 플짤도 돌고 편집 영상도 돌고 으하하하 웃고는 넘겨버리면 그만이었는데 취임 이후 어째 이게 진짜가 됐다. 모든 경찰서에는 비상이 걸렸고 심지어 우체국 앞에도 붙어있더라. 공공기관끼리 4대악 척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맺고, 진지한 얼굴로 플랜카드 앞에서 ‘4대악 척결!’을 외치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인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4대악이 뭔지 열심히 주입교육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요망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4대악이라면 정경유착, 부정부패, 정치비리, 토건사회 이쯤 되어야 될 것 아닌가. 불량식품이라... 4대악에서 말하는 ‘불량식품’의 정의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의 간식이 되어주었던 쏘네티기, 월드컵(취포), 아폴로, 피자 등등 이 아이들이 뭐 그리 ‘악’이더냐 말이다ㅠㅠ 게다가 폭력, 폭력, 폭력으로 나가다가 불량‘식품’으로 마무리되는 이 요망스런 불균형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는 것인가.



정부 취임 후 4대악에 대한 성과를 내라는 압박에 일선 경찰들이 시달리고 있고, 4대악에 치중하느라 실적 경쟁이 일어나고, 과잉 단속을 일삼고, 다른 사안을 못 돌보고, 치안에 구멍 나고, 뭐 이런 애길 하고 싶은 게 아니다. 4대악이 웃기다는 애길 하고 싶은 거다. 웃긴 거 웃기다고 못 하면 안 되잖아!

반복의 힘이라고 이것도 자꾸 반복하니 심지어 그럴싸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지나가는 시민 아무나 붙잡고 4대악이 뭐냐고 물어보면 못해도 반절쯤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모든 게 그날 어썬 후 말씀을 잘못하신 탓에 일어난 난리통이라고 상상하는 건 너무 불경스러운가? 웃긴 걸 웃기다고 했다가 잡혀가는 일은 정말 웃기는 일이지만 그런 웃기는 일이 일어날까 슬쩍 걱정도 되는 내가 너무 웃기다!!!

[용]

만약 출장안마사가 아니었다면?

반복되는 ‘여성폭력 부실대응은 경찰의 반(反)성폭력 감수성 탓

출장 마사지 업소 운전기사 문 모 씨는 임씨의 집 근처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10여 분 전 집안에 들어간 여직원과 통화가 되지 않는다. 이상하다. 성폭력이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4명의 경찰은 창문을 통해 임 모 씨가 출장마사지 업소 여직원을 성폭행하는 것을 목격했으나 밖에서 지켜보다 1시간 뒤에 집안에서 나와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하는 여성의 말을 들은 후에야 임 모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성폭행 당하고 있었다 해도 집안에 강제로 들어가면 신변이 위험할 수 있어 설불리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한다. 처음 이야기한 ‘흥기가 없어서 화간으로 보인다’는 말과는 너무 다른 판단과 근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 경찰이 성폭행과 인질극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음을 상상하고 피해 당사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조심했다 치더라도, 경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창문을 통해 성폭력 장면을 쳐다보는 일 뿐이었을까? 범인이 문을 열게 하는 지능적인 진압을 활용하지 못한 경찰의 감수성 없음과 무능함은 답답한 차원을 넘어선다.

임 모씨가 출장 마사지사 여성을 불러내 성폭행한 것은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성폭력 가해의 특성 상 처음부터 성폭력을 목적으로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성 또한 남성이 있는 집에 혼자 마사지 서비스를 하러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밖에 있는 또 다른 직원과 연락을 하면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진압을 하지 않은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일 수밖에 없다. 창문을 통해서 1시간 동안 경찰들은 성폭력 장면을 목격하면서도 아무런 손을 쓰지 않은 것이다.

만약 출장안마사가 아니었다면?

이쯤에서 드는 의문이 있다. 과연 출장 안마사가 아닌 여성이었어도 경찰은 마찬가지로 대응을 했을까? 성폭력 가해자들은 유흥업소에서 일하거나 출장 서비스를 해주는 일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쉽게 범죄의 타깃으로 삼는다. 물리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구할 곳이 없거나,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에 의해 정당한 수사와 적절한 해결 과정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성의 안전을 책임지기는커녕 여성을 위협하고 취약한 처지를 악용하는 업주들과 이를 방관하는 사회는 가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커다란 원인이다. 정황상 ‘성폭력이 의심되’는 근거가 타당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유에는 경찰의 반성폭력 감수성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자리한다.



사진: <여성폭력에 반대하는 포스터, 사진 출처-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무엇을 성폭력으로 보고 무엇을 문화적 차이로 볼 것인가. 아직도 (누가 보기에) 기괴하고 변태스럽고 악랄하고 잔악무도한 강간만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가. 소리를 지르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저항하며 발버둥치는 피해자만 피해자로 볼 것인가. 가해자와 경찰 뿐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반)성폭력 감수성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비단 해당 경찰관에게만 징계를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숨]

황기자의 팔랑귀



세상은 요지경. 뭐가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황기자의 팔랑귀' 코너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여 명확한 입장을 정하기 힘든 사안들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입장들을 모아 들어보려 합니다. 어허 ~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구나! 황희정승에 빙의 된 황기자는 두 개의 자아로 분열 중!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유나]

여전히 뜨겁 군가산점제

지난해 다시 불 붙었던 군가산점제 논쟁, 기억하시나요? 군가산점제는 1961년 5·16쿠데타 이후 도입된 후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됐으나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뜨거운 주제입니다. 왜 이렇게 이 주제가 '핫' 한지, 군가산점제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은 무엇 때문에 그리 부딪히는지, 양 쪽의 입장에서 있는 두 분의 글을 지면에 실습니다.

<군가산점제>: 군대 복무를 위한 큰 희생에 대한 보상이다. 어떤 의견이 가능한가?

요즘 주말이면 <진짜 사나이>를 본다. 나 뿐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사나이>를 통해 가장 현실과 비슷한 군대생활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스무 서너 살의 젊은 장병들에게 군대생활은 정말 힘들 것이다. 아무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군대에 가지 않는 친구들이 교환학생을 가고 자유롭게 먹으며 편하게 잠자리에 들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을 볼 때 마다 얼마나 억울할 것인가? 티비에 나오듯이 군인들은 편히 잠자고 자유롭게 먹는 것이 불가능한 건 물론이요, 수직적인 명령체계에서는 개개인의 체력이나 기본과 상관없이 할당된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시 어떤 대접도 감수하고 참아내야 한다. 아마 방송에는 안 나오는 육체적인 폭력이나 언어적, 정신적인 폭력 역시 군대 안에 만연하리라 생각한다. 바깥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군대 내에서는 직급이 낮으면 낮은 만큼 숙여야 하는 곳, 복종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군대이다. 그러니 돈 많고 뽕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나.

나도 1년에서 길면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군부대에서 보내야 하는 대한민국의 남성들에게 군가산점제가 완벽한 보상체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군인들 중 몇 프로가 군가산점제의 혜택을 입는 공무원 시험을 보겠는가? 하지만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일생의 소중한 시절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데 대해서 사회나 국가가 보답'을 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나마 군가산점제에 적극 찬성이다.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그러면 니가 가라, 군대!

<군가산점제>: 왜 들 속는지 모르겠다, 군가산점제라는 속임수에

밥 잘 먹고 잠 잘 자며 살다가 국민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군대에 끌려가야 하고, 군대에서 직급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무슨 소리를 듣든 어떤 불합리함이 있든 그저 입 다물고 복종해야만 하는 군대의 상황은 군인들을 억울하게 만든다. 누가 그 억울함을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군가산점제 논란을 보면 그들이 그 억울함과 분노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장애가 없는 젊은 남성을 군대로 징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군대생활을 억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누구 탓인가? 윗대거리들이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따르도록 훈련시키는 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성과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없다/있다고 판단한 것은 누구인가? 모든 것은 이놈의 국가와 국방부가 다 벌여놓은 것인데, 왜 이 모든 문제를 그들에게 수습하고 처리하고 해결하라고 하지 않는 것인지 나는 밤새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군가산점제는 속임수다. 국가가 군인들 부리고 싶은 대로 다 부리곤 자신들은 아무 희생할 필요가 없는 군가산점제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군대에 올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공간으로 군대가 탈바꿈하는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다. 군가산점제는 지금껏 마음껏 착취했던 젊은 군인들의 노동력은 계속 쓰면서 그 책임은 애먼 여성과 장애인이 지도록 만드는 저열하고 못난 속임수일 뿐이다.

나라한테 속지 좀 말자. 만만하게 굴지 좀 말자. 취직할 때 가산점 좀 주면 군대의 불합리함과 폭력성을 용서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나라 윗사람들이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겠는가! 속임수일 뿐인 군가산점제 말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군대문화와 운영방식을 바꿀 수 있는 시도를 (국민 만만하게 보고 기만하는) 이 나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진짜 사나이>에시청자



<푸른거탑>에시청자



별별신문이 아심차게 준비한 휴가비를 쏜다! 쏜다! 쏜다! 에 접수 된 유일한 원고는 평소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의심과 기대를 갖고 계신 이레님의 편지글입니다. 업소 일을 하면서 느끼는 마음과 성매매여성 지원단체가 어떤 태도로 여성들을 만나야 하는지 새겨들을 말들이 많네요.

To. 성매매여성 지원단체

그냥 한번 발을 들이면 자의든 타의든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또 는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금 되돌아가고 하는 반복적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자연적 순리라 한번쯤.. 그리 여기지는 않으셨는지... 그런 솔직한 질문을 본인들에게 한번쯤은 해보셨는지... 도움 받는 입장에 놓인 이들에겐 도움 주는 이들의 진정성에 가장 크게 작동 되기에 늘 의심스럽거든요. 저처럼.. 성매매 여성들은 각종 피해들을 많이 당하지요. 그래서 '호의'라는 단어와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푸는 사람 중에 나를 이용하지 않은 이가 없었기에.. 저희가 사는 세상의 '호의'란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여성단체나 반성매매 단체 언니들이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피해라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 한다는 '호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체 언니들 여럿 만나봤지만 결국엔요 저희가 느낀 감정은 그런거였어요. 같은 여자로서 더 이상 남자들의 성적 유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쉼터에서 자활 훈련을 통해 탈성매매 여성으로서堂堂히 살아가도록 돕겠다... 취지가 그거더라고요... 저희가 도와달란 것도 아닌데 콘돔이나 사탕들구 찾아와서 자발적 의사로 왔어도 피해자는 여성이다. 같이 손잡고 악순환을 끊어내자고 하는데. 그건 '호의'도 아니구요.. 저희가 원하는 것도 아니기에 업소에 찾아오는 단체언니들 말엔 그 누구도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 거예요... 아가씨들 마음속에 '뭐야... 같은 여자로서 우리가 몸 팔아 돈버는게 창피하다는 거잖아 결론은.. 아.. 재섭어..' 이렇게들 얘기하게 된다고요...



우리 언니들 참 사연들 가지각각이지요... 개중엔 명품이나 황새파라 가려다 가량이 찢어진 언니들두 물론 너무 많지요... 그래도 그 마음 속은 다 비슷하답니다~
겉보기엔 절절하고 깡패처럼 싸늘한 시선으로 늘 공격 태세로 경계 하잖아요... 자신을 감추고 최대한 웅크린 상태에서 늘 사방에 적을 살피는 사파리의 맹수들과 똑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생채기 받지 않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여겨주실 뉘... 나와 가장 가까운 옆사람과 늘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남들 눈엔 절친, 내 마음엔 칼날보다도 날카로운 비수인 동료라는게..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그 삶 대신 살아보지 않는 한 절대 모를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 마음이 얼어붙은게 아니라 강철로 단단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내가 베푼 건 친절이었으나 되돌아 오는 건 배신 뿐인 화류계... 그 울타리 안에 갇힌 언니들 마음속에는 매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하며 가슴에 메아리가 울린다는 걸 그 되돌아 오는 메아리에 술이 술을 부르는 거지요... 일하면서 먹는 술.. 일 끝나고 내 한풀이 용 술.. 집창촌에 어떤 언니들(저 포함) 포주 몰래 종이컵에 커피처럼 술을 마셔야 영업이 더 잘되요.. 이유는.. 아시리라... 우리는 평범하다는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담배피고 여잔데 몸에 그림 있고 몸파니까 평범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다 청산하고 살아보려는데도 글렀대요.

전혀 평범하지 않대요.. 그럼 좌절하고, 그냥 본래의 나로 되돌아 가고 싶을 뿐이에요... 이리사나 저리사나 알아주는 이 없고 욕도 똑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포기가 참 빠르기도 해요. 포기가 빠르다고 내일을 꿈꾸며 살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나도 언젠가는 빛 다 갖고 나가야지... 돈도 조금 벌어서 꼭 나가야지.. 나갈 거야.. 그런 날이 온다면.. 근데 정말 내게도 그런 날 올까...? 나 처음 이 일 시작할 때 딱 1년만 고생하고 돈 모아 손털고 작은 가게 하나 장만해 그리 살려 했는데.. 저 언니처럼 서른 넘어 이일 하는 일 없을 거야 했었는데... 나 지금 그때 그 언니보다 더 나이 들어 버렸네.. 그래도 꼭 나가고 싶다. 여기서 나가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야지... 언젠가는... 오겠지.. 올 거야..' 이렇게 막연히 내일을 그려요.

정말 힘들때요 난 위로가 되고픈데 상대방은 혼자 있고 싶어... 이런 말 가끔 자주들 하잖아요.. 겪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는요 위로의 말 그런거 소용없더라고요.. 귀에 솔직히 안 들어오더라고요... 여튼요.. 사람 눈이요.. 사람 눈은 절대 거짓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꼭 도와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냥 눈으로 말하세요.. 스치듯 짧고 간결하게요. 그럼 언젠가는 그 쪽에서 사소한 말이라도 먼저 건넬지도 몰라요.. 속는 셈치고 해보세요~

From. 이레

<광고>

매월 만나는 통쾌함! 월간 비범죄화

블로그 <http://blog.naver.com/tideplus> (일지영)

月刊 비범죄화

5
2013

월간 문예 대상 수상작 "비범죄가"

비범죄가(非犯罪歌)
니탓이다 니탓이다 내탓이라 니탓이다
업주가 가게차려 남성 손님 불러드니
성매매 유흥업소 어찌 여성아이런가
업주 손님 잡아가고 나만 산들 어떠하리
빛 목록 업주는치 손님비위 단속걱정
화류계 살아남기 사름이 한이 없다
억울타 가슴치며 처벌걱정 맘못하니
어즈버 비범죄화 꿈이런가 하노라

독점 인터뷰

도우미 안 쓰는 노래방협회

김O조 대표

"장사야 뭐... 알아먹을 지경이지"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성구매할생각없는 한림의남성모임

회원 수소문 중

충격고백, 그 후...

"연락 끊어 왔어요. 너 페미니즘이었나고.
그럼 레즈비언인가는 소리까지...
이젠 완전히 극복했죠."

성판매여성비범죄화추진연합

제 2호

1년간 출간하고 1월 1일 예정

월간비범죄화 블로그 <http://blog.naver.com/monthly2013>

별별인화 - 세번째 이야기 by 박화정

지독한... 사랑?

사랑에



스토킹, 고작 벌금 8만원?

국무회의를 통해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3월 11일) 후 많은 SNS를 통해 '스토킹, 고작 벌금 8만원?'이란 조소어린 이야기가 쏟아졌다.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중 신설된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처벌 조항(3조1항 제41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교제를 요구하거나 잠복해 기다리는 등의 행위'에 대해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8만원의 범칙금이라는 경미한 수준의 처벌 조항으로는 심각한 범죄인 스토킹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가 될 수 없다.

스토킹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데이트 상대이거나 배우자, 지인까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에 일상을 침해하는 지속적인 괴롭힘은 더 드러나지 않고 그 피해가 지속될수록 피해자는 일상생활의 반경이 통제되고 이에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가해 행위는 공포감, 위협감을 갖도록 하는 범죄행위들로 싫다는데도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거나 미행, 감시, 반복적인 전화, 협박 등 신체적·심리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기타 상대방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생활공간을 침범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일회성 피해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인 스토킹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해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숨]

- 이 글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쓴 <[경범죄 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조항 신설에 관한 논평>을 발췌했습니다.

함께 나눌 책을 소개합니다.

천만번 괜찮아(박미라 지음, 한겨레출판, 2007.)
마음의 문을 연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나누어져 있다. 주로 연인, 부모, 부부, 친구 등 인간관계에 얽힌 우리의 고민을 풀어준다. 그리고 감정에 얽매어 죄의식을 느끼느라 자신과의 전쟁을 끝없이 벌이는 사람들의 감정을 보듬으면서 그들에게 세상의 눈에서 벗어날 것을 권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용서'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수신확인 : 차별이 내게로 왔다(인권운동사랑방 엮음, 오월의 봄, 2013.)
소수자들을 만나고 듣고 기록한 이야기!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비혼모, 트랜스젠더, 레즈비언과 게이, 이주자, 청소년과 장애인 등 평범하지 않지만 평범한 그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총 7장으로 구성하여, 한 비혼모가 자기와 같이 수업을 듣는 동료 학생들에게 특강 형식으로 들려주는 이야기, 트랜스젠더로 사법부에 성별변경을 호소하는 탄원서, 엄마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 성소수자 청소년의 성장사 등 하나의 정체성으로 호명되기를 거부하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여성관련 뉴스]

여성 이슈

성폭력, 그 이후?

생존자네트워크 [이후]는 성폭력 이후의 삶을 회복하는 생존자네트워크이다. 생존자 네트워크(준)는 성폭력피해 이후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 성폭력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회복해 나가는 것을 함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아동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경험을 기록한 <꽃을 던지고 싶다>의 출판기념회와 '성폭력 그 이후의 삶'이라는 주제로 집단 상담과 힐링여행도 진행하고 있다. 이제 시작 단계라 많이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카페가 있으니 둘러볼 수 있다. <http://cafe.daum.net/e-hoo>

[이후]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소개해 본다.

기록화사업 생존자들의 삶을 기록한다

교육사업

생존자들을 예방강사로 양성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반성폭력 문화를 만들어간다.

일시보호쉼터 피해 당시의 공포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상담

생존자의 삶을 회복한다.

여성학 모임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돕는다.

생활강좌

당사자가 강사가 되어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자존감 회복을 돕는다.

캠페인 및 대중강좌

지역사회의 반성폭력 의식을 고취한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참고할 수 있다.

제 10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성폭력 생존자로서 나의 경험과 삶을 말하기 함으로써 공감과 지지의 기운을 나누는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말하기대회에서는 성폭력생존자로서의 경험과 이야기를 언어로 전달하고 성폭력생존자의 말하기를 지지하는 듣기참여자의 무대로 구성됩니다.

성폭력을 둘러싼 편견을 전복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단단한 고정관념에 균열을 낼, 용기 있고 힘 있는 말하기에 함께 해요. 10월 중순 이후, 서울 시내 어느 극장, 추후공지.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02-338-5801

성폭력피해생존자 글쓰기 치유워크샵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6월부터 11월까지 글쓰기 치유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성폭력 피해경험을 다양한 언어의 결로 풀어내는 치유 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여자들의 글쓰기 기록은 문집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생기달풀 <http://cafe.daum.net/dalpul>

02-6338-6445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http://cafe.daum.net/nsvpcca/>

010-4242-1369

고마담의 고민살롱



나의 이별을 슬퍼하기

전 몇 개월 전에 애인과 이별을 했어요.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고 별
력별력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대요. 저는 늘 스스로가 강해서
이별을 잘 견디고 마음 정리가 빠르다고 생각해왔거든요. 이번 이별
은 제겐 너무 낯설고 생소하고 힘들어요. 억지로 웃고 힘을 내서 일
을 하려고 해도 돌아서면 더 쓸쓸하고 허전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
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해도 삶의 의욕도 없고
제 주위에 이젠 아무도 없고 혼자 세상에 남겨진 느낌이 들어요.

애잔이

이별은 나와 함께 추억을 공유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함
께 걸었던 길, 함께 갔던 커피숍, 함께 만났던 사람들, 함께 들던 노래,
함께 했던 많은 수많은 날들, 나를 향한 따스한 눈길과 손길, 사랑했
던 시간들, 일상이었던 모든 일들이 한 순간에 일상이 되지 않고, 돌
아갈 수 없는 추억이 되어버리는 것 자체가 상실입니다. 상실감은 나
를 슬프게도 하지만 '내가 좀 더 잘했다면..'이란 죄책감을 유발하기
도 합니다. 다만 내 삶 중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관련된 추억을 잃었을
뿐, 내 삶 전체를 잃은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억지로 괜찮다고 하지 않기

나의 에너지가 아직은 슬픔에 젖어있다면 뭔가를 애쓰지 않아도 됩
니다. 흔히들 이별을 하고 나면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그 이별을 잊
으라고 하거나, 일에 몰두하라거나 바쁘게 지내라고 주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우울해도 괜찮고 슬퍼도 괜찮다라는 주문
입니다. 친구들이 '요즘 괜찮아?' 라고 물어오면 '괜찮다' 대신 '아니
아직은..' '그냥 그래..'등으로 솔직해져도 좋습니다.

-애도 의식

이별을 하고 나면 다 하지 못한 말들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식을 친한 친구와 치러도 좋고 혼자 치러도 좋습니다. 이별한 사람
에게 못 다한 말들은 편지로 쓰고,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선물을
앞에 두고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녕'이라
는 말을 함으로써 내 마음 속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시간을 내가 먼
저 하는 겁니다. 또는 잊고 싶고 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가라'는 말과 함께 태워보냅니다.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용기 있게 겪고 참고 애쓰는 내 자신에 대한 연민을 느끼면서 나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새로운 일상을 천천히 만들어가기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끼니를 걸렀던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맛있
는 것을 먹으면서 기운을 차리고 소소한 쇼핑으로 새로운 물건들을
살에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접촉면을
위해 모임을 알아보고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당
장 짜잔~ 펼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가 혼자 갇혀 있
던 일상을 더 넓히게 도와줄 것입니다.

From, 고마담

살살정보

두루 살리고 살피는 정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요가 자세



하루를 정리하는 3분 명상

침대 위에 다리를 펴거나 겹쳐 편안한 자세로 앉은 후 허리는 펴고
살짝 침대 머리나 베개에 기대세요.
손은 허벅지 위에 올려두고 정신을 호흡에 집중하며 눈을 감고 천천
히 들이 마시고 내쉬는 동작에만 신경을 쓰세요 몇 분간 호흡으로 마
음을 진정 시켜 준 다음 눈을 뜨세요.



앉은 자세로 비틀기

반가부좌로 앉은 자세에서 왼손을 오른쪽 무릎에 올리고 상체를 돌
려 뒤를 보세요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부분을 잡고 허리를 최대한 돌려 주세요 몸을 비튼 자세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한 다음 반대편도 반복해 주세요



편안하게 굽히기 자세

앉은 자세에서 양팔을 앞으로 뻗고 상체를 천천히 숙여 주세요 엉덩
이와 허리를 긴장 시키지 말고 편안한 자세에서 상체를 쪽 펴주세요



다리와 등 뻗어 스트레칭

다리를 앞으로 뻗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손이 발에 닿도록 자세를 취
한 후 등을 곧게 펴주세요 등을 똑바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까지 무
릎을 구부린 후 유지를 하다가 팔을 풀고 무릎을 편 다음 상체를 굽
혀 다리에 닿도록 눌러주세요

[출처] 잠 잘 오는 요가 자세 | 작성자 chpy_1502

[용]